

1617年 日本使行과 實利外交

鄭章植*

目次

- 一. 서론
- 二. 使行
 - 1. 使行 파견 결정
 - 2. 倭情咨文과 實利外交
 - 3. 被擄人 刷還
 - 4. 幕府의 禮物은 穢物인가?
 - 5. 伏見城 聘禮
 - 6. 国書 改作
- 三. 結 論

一. 서론

朝鮮이 德川幕府에 두 번째 使行을 파견한 것은 1617년(光海君 9. 元和 3)이었다. 1607년에 “ 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하여 德川幕府를 탐색한 朝鮮은, 家康과 秀忠을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하였다. 1609년(光海君 元) 6월, 조선은 對馬島의 끈질긴 요청을 수용하여 己酉約条를 체결하였고, 대마도는 對朝鮮貿易에서 戰前의 地位를 다소 회복하고, 豆毛浦 倭館을 근거로 활발한 상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¹⁾

倭亂이 조선에 남긴 후유증은 굶주림의 확산과 질서의 파괴였다. 1608년 2월 光海君이 즉위하였으나, 明朝는 世子의 兄(臨海君)이 있다는 이유로 光海君에 대한 인준을 늦추었다. 이러한 와중에 臨海君이 유배지인 江華島에서 變死(1609:光海君 元)한 사건을 시작으로, 조정에서는 크고 작은 党爭이 끊이지 않았다.

1610년, “ 朝鮮과 明의 연합군이 오랑캐를 친다는 정보를 듣고, 오랑캐들이 聲東擊西하려는 계략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본학

1) 己酉約条를 임진왜란 以前과 비교하면 무역이 대폭 제한되었고, 約条의 성격은 中世부터 있었던 조선과 島主의 私的인 통교관계를 바탕으로, 대마도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歲遣船 20척과 歲賜米豆 100석은, 癸亥約条(1443)의 각 50척에 200석에 비하면 대폭 삭감되었다. 또 戰前에는 예외로 허가되었던 特送船도 歲遣船 20척에 포함되었고, 浦所도 한 곳으로 제한되어, 豆毛浦에 倭館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대마도가 왜란에 앞잡이 노릇을 한 것에 대한 懲罰이었고, 대마도는 이 제한을 戰前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

으로 군사를 움직인다”는 정보에, 朝廷은 각종 火器와 箭竹을 서둘러 北邊에 배치하였다.²⁾ 이제 조선은 오랑캐 군사력의 위협 앞에서, 北虜南倭의 취약한 地政學的 위치를 切感하게 되었다. 1616년 建州女眞의 일개 부족장이던 누르하치가 탁월한 정치,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여 女眞族을 통합하여 後金國을 세우니, 明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日本에서는, 1614년 家康의 奸策으로 일어난 “方広寺 鐘銘事件”을 계기로, 1615년에는 家康이 大坂城을 공격한 “大坂夏の陣”으로 秀吉의 아들 秀頼(23歲)와 秀頼의 어미 淀君(49歲)이 자살함으로써, 家康이 걱정하던 豊臣家の 殘在가 모두 없어졌다. 이에 秀忠은 ‘大名’들을 牽制하려고, 1615년 7월에는 伏見城에 ‘大名’들을 모아놓고 “武家諸法度”를 布告하며, 従来の 徳川氏와 ‘大名’들의 私的인 服屬關係를 公的인 政治關係로 再編成하였다. “武家諸法度”도 형식은 秀忠이 포고하였으나, 實은 家康의 脚本이었다. 이렇게 家康은 徳川幕府의 礎를 굳건히 다져놓고, 1616년 75세를 一期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國際情勢 아래, 조선은 대마도의 집요한 통신사 파견 요청을 받아들여 使行을 파견하게 되었다. 朝廷은 사행 명칭을 처음에는 “回答使”라 하였으나, 속셈은 1607년 사행 파견 以後 달라진 日本 國情을 탐색하고, 女眞族의 발호로 北邊이 어지러운 때, 우선 徳川幕府와 和好하여 南邊의 安全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本稿에서는, 1617년 使行이 왜 일본에 갔으며, 兩國間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使行錄(正使 吳允謙의 『東槎上日錄』, 從事官 李景稷의 『扶桑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使行 交流에 주목하였으나, 本稿에서는 使行 파견까지의 事情이 使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光海君日記 2년 2월 1일

二. 使行

1. 使行 과건 결정

대마도는, 家康 生前에 통신사 업무를 위임받아, 기회 있을 때마다 통신사 과건을 요청하여 朝廷을 귀찮게 하였다. 1613년(光海君 5. 慶長 18) 10월에도 대마도는, 徳川家와 皇室의 婚姻을 祝賀하는 통신사 과건을 요청하였으나, 朝廷은 前例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러한 때에 누르하치가 明을 위협하자, 明의 요청으로 1614년 조선은 女真軍 토벌을 위하여 壯勇隊를 편성하였으나, 光海君은 出兵을 미루며 외교적으로 중립을 취하며 조선의 安全을 保全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의 불온한 움직임을 아는 누르하치는, 明을 공격하기 앞서 朝鮮을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朝廷을 긴장 시켰다.³⁾ 이렇게 北邊이 어지러운 1614년, 대마도는 또 통신사 과건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은 역시 거절하였다. 1615년 경상도 관찰사가, 대마도가 돌려보낸 梁山 사람 신경난(辛景鸞)의 말을 보고하였는데,⁴⁾ “ 家康이 秀頼를 공격하여 秀頼와 휘하 장수들이 모두 자살하였고, 尙馬島主 貞光(宗義成)도 이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家康이 日本을 平定하고 信使를 맞이하고자 하는데, 信使가 가면 많은 피로인이 돌아올 수 있다” 는 내용이었다.⁵⁾

또 경상도 兼司僕 鄭信道의 상소에, “ 포로로 잡혀간 全以生 등이 보낸 편지를 보니, 薩摩州에 잡혀 있는 자가 30,7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槍劍術과 戰場에서 陣 치는 법을 배워 한 사람이 萬名을 당해낼 수 있는 勇士들이라, 만약 이들을 刷還하여 飮待하면 국가에 보탬이 되겠다” 는 내용이 있다.⁶⁾ 信使 과건을 촉구한 신경난(辛景鸞)이 대마도의 도움으로 귀국한 것이 대마도의 사신 요청과 같은 때였고, 1617년 1월에 보고된 晋州 유생 慎忞昌도 平調典의 도움으로 귀국하였고, 또 薩摩州에서 30,700여 명의 용사들이 쇄환을 鶴首苦待하고 있다는 全以生의 믿기 어려운 편지도 대마도를 경유하여 전달된 것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정보 유입은 대마도가 사신 과건을 유도하기 위한 兩面作戰이었다고 볼 수 있다.

倭館에 있던 尙馬島 사람들에게는 貿易도 중요하였지만 조선의 정보수집도 중요한 업무였다. 尙馬島는 北邊 정세가 험악해지고 있음을 알았고, 이러한 때에 조선이 원하는 것은 북변 정세에 대비할 武力임을 看破하고 있었으므로, “ 薩摩州에는 30,700여 명의 잘 훈련된 勇士들이 쇄환을 鶴首苦待하고 있다” 는 신빙성 없는 全以生의 편지를 流入시켜, 피로인 쇄환이 北邊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話頭로 사신 과건을 誘導하였다고 본다.

1615년 대마도는, 島主 宗義智의 사망과 아들 宗義成의 島主 封襲을 알리며, 倭使 橘智正은 또 사신 과건을 요청하였다. 이 때도 朝廷은 前例가 없음과 明朝의 許可를 이유로 대마도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1616년 3월에도 대마도는, 將軍 秀忠으로부터 사신 초빙을 命받아 사신 과건을 요청하니, 4월에 예조 참의는 明朝의 허락을 얻어서 사신 과건을 고려하겠다는 애매한 회답을 보냈는데, 이후로 대마도에서 使者가 오지 않자, 조정은 일본 情勢를 걱정하였다. 그러다가 10월 27일에 대마도 使者가 부산에 오니, 光海君은 接慰官을 보내라고 命하였으며, 接慰官은 使者에게 사신 과건 결정을 전하니, 倭使 橘智正은 크게 기뻐하며 喜報를 전하려고 12월 29일 대마도로 떠났다.⁷⁾

3) 光海君日記 2년 2월 1일

4) 光海君日記 9년 5월 30일

5) 家康은 “ 大坂冬の陣”을 開始할 때(1614년 10월)부터 使臣 來聘을 희망하였고, 大坂城을 平定하였을 때(1615년 5월)도 대마도로 하여금 使臣을 來聘토록 하였다. 이것은 秀吉 殘黨이 멸망한 것을 사신에게 보여 공격을 正当化하며, 아울러 徳川幕府 성립의 正当性を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6) 光海君日記 9년 4월 19일

朝廷이 사신 파견에 대하여 좀처럼 確答을 하지 않자, “橋倭”(橋智正)는 朝廷의 태도에 화를 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朝廷이 사신 파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尙馬島는 더욱 적극적으로 確答을 얻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兩面作戰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맞서 조선이, “明朝의 허락을 얻어서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것도 高度의 외교전략이었다. 1604년 이후 조선의 尙日外交는 明朝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1607년 제 1차 “회담검쇄환사” 파견 때도 조선은 事後에 明朝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사신을 파견하려면 明朝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며, 만약 사신 파견을 거절할 때는 “明朝의 不許”를 이유로 내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마도에서는, 1613년에 尙朝鮮外交를 전담하던 柳川景直이 죽고 그의 아들 調興이 11살에 襲職하였고, 島主도 10살에 襲職하여 그간 尙朝鮮外交에서 활약하던 인물이 없어지니, 1616년 5월 조정은 사행 파견에 앞서, 대마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諷官 朴大根을 파견하였다. 조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긴박한 北邊情勢에 대응하려면 南邊의 安保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617년 1월 9일, 福州 儒生 慎應昌이 九州 日向으로 잡혀갔다가, 江戸와 大坂을 거쳐, 同志들과 배와 식량을 준비하여 대마도로 들어가 1년 가량 억류되었다가, 調興의 도움으로 20여 명이 귀국하였다고 보고되었다. 慎應昌은 日本事情을 보고하며, “대마도가 통신사를 요청한 것은 家康의 승에서 나왔으며, 그 뜻은 家康에게 功을 세우고 이익을 독점하는 데 있으니, 信使가 가든 가지 않든 秀忠에게는 크게 손익이 없습니다”며, 굳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역설하였다.⁸⁾ 그러나 조정은 南邊 안보를 위하여 사행 파견이 필요하였으므로, 1월 17일에는 東萊府使로 尙日交渉에 경험이 많은 吳允謙을 正使로 임명하며 사행 파견 준비에 들어갔다. 慎應昌의 보고에, “倭人이 疑懼하는 것은 天兵이니, 군사들의 衣冠을 중국 제도에 따라서 왜인이 보기에 현란하게 하고, 威武를 드날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선명한 복장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財力이 부족함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사행 파견에 앞서 朝廷은, 前例에 따라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幕府 將軍의 서계를 요구하니, 대마도는 발빠르게 “日本国王源秀忠封書”로 장군의 서계를 보내와, 이로써 조정은 사행 파견의 名分도 얻게 되었다.⁹⁾

2. 倭情咨文과 實利外交

將軍의 서계를 받은 朝廷은 “倭情咨文”으로 明에 奏聞하였으니, 여기에 朝廷의 日本認識과 사행 파견 이유가 명확하게 보인다.¹⁰⁾ 먼저 조정은 明朝에 咨文하기를, 사신 파견은 조선의 意圖가 아니라, “日本国王 源秀忠이 서계를 보내와 사신을 요청”하여, “兩國間の 隣好가 도담고 仁義의 중함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1607년 사신 파견은 日本 国情을 탐색하고 대마도의 입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시 대마도가 사신 파견을 청원하였다”고 하였다. 또 귀국한 피로인의 情報에 의하면, 일본 정세가 심상치 않으며, 家康이 秀吉의 아들 秀頼가 있는 大坂城을 무너뜨려 조선의 원수를 갚고는, 조선 使臣을 맞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피로인 쇄환을 위해서도 사신 파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倭情咨文”에서, 대마도가 쇄환한 辛景鸞의 보고를 引用하여, 일본 事情과 피

7) 光海君日記 9년 1월 8일

8)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1월 9일

9) 光海君日記 9년 5월 30일

10) 光海君日記 9년 5월 30일 : 「왜가 수호를 요청해 회답사를 보내고 天朝에 주문한 咨文의 내용」

로인 쇄환을 언급하였고, 또 피로인 全以生이 대마도 사람 편에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薩摩州에는 피로인 30,700여 명이 ‘鳥銃’과 창검 쓰는 재주를 잘 익혔으며, 모두 쇄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피로인 全以生의 편지를 報告한 경상도의 兼司僕 鄭信道의 上疏에는, “이들은 배운 것이라고는 창이나 칼을 쓰는 법이며, 연습한 것이라고는 싸움터에서 진을 치는 법뿐이어서 모두가 한 사람이 万名을 당해낼 수 있습니다”며, ‘鳥銃’ 이야기는 一言半句도 없었는데, “倭情咨文”에 느닷없이 ‘鳥銃’이라는 단어가 들어 간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¹¹⁾ 그렇다면 “倭情咨文”에서 ‘鳥銃’과 피로인 쇄환을 연계시켜 강조하고 싶은 조정의 意圖가 숨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1614년 明朝는, 왜란 때 支援兵을 파병하여 조선을 도왔다는 “再造之恩”을 들먹이며, 明朝를 위협하는 女真軍 토벌을 위하여 조선의 지원병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明朝의 지원병 요청에는, 女真軍의 강력한 騎馬兵을 저지하는데는 朝鮮이 그간 양성한 砲手가 유용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砲手를 파병하여 女真軍과 싸워주면, 明朝는 “以夷制夷”하여 女真軍과 조선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외교전략이었다. 그러나 光海君은 明朝의 군사적 劣勢와 女真軍의 勝勢를 알고 있었으므로, 지원병 파병을 꺼리며 외교적으로 중립을 취하여 조선의 安全을 確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에, 일본에 또 使臣을 보내며 일본과 和好하는 것은 明朝로서는 달갑지 않은 “오랑캐들의 野合”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倭情咨文”은, 日本 使行 목적이 “기미(羈縻)”와 “쇄환”에 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쇄환을 鶴首苦待하고 있다는 30,700여 명의 용사들이 ‘鳥銃’에 익숙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30,700여 명의 鳥銃에 익숙한 용사들이 쇄환 되면, 조선은 이들을 우선 北邊에 배치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女真軍을 압박하는 것이니, 明朝가 使行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또 “倭情咨文”에서 강조한 “日本国情探索”이란, 일본의 再侵을 우려한 것인데, 1607년 家康과 秀忠이 사신에게 보여준 우호적인 환대로, 조선은 德川幕府를 신뢰하게 되었다.¹²⁾

만약 다시 일본 내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면, 대마도가 먼저 그것을 걱정하여 어떤 형태로든 조선에 위협을 경고할 것이었다. 당시의 정세는, 家康이 豊臣家를 멸망시키고 德川幕府의 기틀이 확고하게 되었으니, 조선이 불안을 느낄 것이 없었다. 朝廷은, 幕府가 “日本平定”을 이유로 “信使”를 요청할 때 사신을 파견하면, 友好 확립의 好機임을 알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明朝에 “日本과 友好”를 標榜할 수는 없어서, “信使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는 피로인의 말을 인용하며, 쇄환이 가장 중요한 使命이라고 奏聞하였으나, 피로인 쇄환을 처음부터 표방한 사행은 아니었다. 朝廷은 처음 使行 명칭을 “回答使”로 하였다가, 사행을 떠나보낸 후에 “刷還使”를 덧붙여서 “回答使兼刷還使”로 부르도록 과말을 보냈으니, “쇄환”은 처음부터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³⁾

사행 출발을 앞둔 4월 22일 비변사등록의 備忘記에, “지금 이 ‘回答使’의 사행은 국가에서 불시에 필요로 하는 倭朱紅(붉은 물감) 및 上品의 銃劍을 충분히 들여오려고 하는 것으로, 이 밖에 軍器 등과 관계된 물품으로서 들여올 만한 것이 있으면 비변사로 하여금 戶曹와 협의, 啓下하여 자금을

11) 光海君日記 9년 4월 19일: 「鄭信道가 상소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쇄환을 청하다」

12) 一例로, 禁輸品이었던 兵器(鳥銃과 日本刀)를 조선에 파는 것을 허락한 家康의 배려에 使臣은 感銘을 받은 것 같다. <1607년 『海槎錄』 윤 6월 8일>

13) 實錄과 비변사등록에는 “回答使”라고 하였다. “回答兼刷還使”라는 호칭은 使臣이 출발한 후에, 備忘記에 의하여 1607년 예를 따라 호칭토록 명하였다. (光海君日記 9년 6월 26일)

그런데 使行은 7월 7일 부산을 떠났고, 朝廷의 전달은 7월 8일 東萊에 도착하여, 使臣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8월 8일)

주어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회답”이나 “쇄환”은 明朝의 의심을 희석시키려는 변명이었으며, 또한 日本에 보이려는 名分이었고, 사행의 목적은 北邊 사태에 대비한 南邊 安保와 銃劍 구매에도 있었다.¹⁴⁾

光海君은, 1618년 明朝의 요청으로 파병되는 姜弘立에게, 적당히 기회를 보아서 後金에 투항할 것을 內密히 지시할 정도로, 어려운 국제정세에서 조선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光海君은 왜란을 통하여 험난한 民生을 체험하였고, 國家存亡이 風前燈火와 같았을 때 分朝를 이끌고 八道를 돌며 27개월이나 抗戰을 독려하였으니,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國家安保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光海君이 分朝를 이끌고 西北 邊方을 전전할 때, 한창 발흥하던 女真軍에 대해서 들어보니, 騎馬兵團의 위력이 왜군의 戰力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였다. 그러한 女真軍이, 왜란 이후에도 戰力を 정비하여 계속 北邊을 위협하였고, 女真軍을 견제하던 明朝도 이제 그들의 군사력에 밀리고 있었으니, 조선은 이제 明朝만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 光海君은, 조선의 군사적 열세와 “北虜南倭”의 地政學的 弱點을 切感하였으므로, “北虜南倭”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오랑캐에 대하여, 조선은 전통적으로 羈縻策을 써서, 미개하고 사나운 오랑캐에게 禮와 義理를 논하기보다, 견제하고 구슬리며 적극적인 대응을 피해 왔었다. 그러나 光海君은 적극적으로 北邊 사태에 대비하여, 火器 생산에 注力하였고, 한편으로는 오랑캐의 정세 탐지에도 注力하여 “옛 사람은 싸움에 임하여서도 使者는 그 사이에 있었다. 더구나 이 때를 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오랑캐 정세를 자세히 모르니 어찌 미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申忠-과 같은 영리한 武臣을 들여보내 敵情을 탐지하도록 하였다.¹⁵⁾

明朝가 倭亂 때 지원병을 보낸 속셈은, 中原을 목표로 進擊하는 倭軍을 조선 땅에서 저지하는 것이었으나, 明朝는 왜란 후에도 “再造之恩”을 들먹이며 조선의 內政까지 간섭하였다. 明朝가 “再造之恩”을 생색내는 데야 어찌할 수 없었으나, 光海君은 자신의 책봉 과정에서 보인 明朝의 태도와, 光海君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明使의 횡포를 보고, 反明 感情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광해군은 明朝에 노골적으로 反感을 표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동아시아의 國際情勢는 明朝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미 明朝는 西山에 걸린 해와 같았고, 오랑캐라고 무시하였던 後金이나 日本이 武力이나 경제력에서 優勢함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이들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國家安保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3. 被擄人 刷還

朝廷은 이번 使行 명칭을 “回答使”로 정하였다가, 사행이 출발한 후에 “刷還使”라는 명칭을 덧붙이도록 口頭로 전달한 것을 볼 때, “刷還”은 처음부터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倭情咨文”에서는 “기미(羈縻)”와 “쇄환”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쇄환을 鶴首苦待하고 있다”는 30,700여 勇士의 숫자까지 제시하였으나, 역시 이번 사행에도 쇄환은 名分에 지나지 않았고, “회답겸쇄환사”이라는 명칭도 외교적인 전술로 내세운 것이었다.

사신들은 대마도 府中에 도착한 다음 날(7월 10일), 島主와 柳川調興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번 행차가 오로지 쇄환을 위한 것”이라며 먼저 쇄환을 강조하였다. 그러자 島主는, “저희도 쇄환에 노

14) 1607년 使行부터 朝廷은 日本 銃劍 購買를 추진하였다. (선조실록 40년 1월 4일. 5일)

15) 비변사등록. 광해군 9년 4월 10일. 光海君日記 9년 8월 29일

력하고 있습니다만, 事勢가 전(1607년)과 달라서, 나이를 먹었거나 결혼을 하여, 쇠환 영을 내려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염려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신은, “결혼하였거나 자손이 장성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人情이란 고국을 그리는 법이다. 지난번에도 결혼한 자들이 많이 귀국하였다. 다만 賈島가 쇠환에 힘쓰지 않음이 염려될 뿐이지, 우리 백성이 어찌 귀국을 좋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조정의 優待를 받고 있으니, 쇠환에 성의를 다하라.”며 대마도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나, 사신들은 쇠환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1607년 사행을 경험으로, 장군의 명령이 떨어져서 쇠환을 시작하면 늦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미리부터 대마도를 채근하였다. 사신들은 지난 사행 보고를 바탕으로, ‘大名’들은 막부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쇠환에는 비협조적이며, 대마도는 각 지역 ‘大名’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중간에서 피로인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모두를 不信하고 있었다. 이럴 때는 막부 중추의 명령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신은 막부의 명령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이번 사행에서도 사신들은 집요하게, 쇠환으로 막부의 和好 信義를 보이라고 강조하며, “막부에서 엄명을 내려 전부 쇠환하도록 해 달라”고 ‘老中’ 本多正純에게 요청하였다.¹⁶⁾ 그러나 막부는 “다만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쇠환한다”는 원칙이었기에, 本多正純(上野守)은 “일본은 사람이 매우 많으니 조선 사람 5천~6천 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만 원하지 않는 자를 어찌 차마 강박하여 보낸단 말입니까?”하며, 正使의 요구에 人道主義를 들어 반박하였다.¹⁷⁾ 戰後 使行 시작부터 幕府는 이러한 방침으로 一貫하였기에, 쇠환에 대해서는 國書에서 言及하지 않고, 예조 參判에게 보내는 執政 답서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本多正純은 1607년 회답사를 영접한 本多正信(佐渡守)의 장남으로, 그 父子는 家康. 秀忠의 謀臣으로 막부에 영향력이 있었고, 本多正純은 “執政”[老中]으로 使行 영접을 관장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 사정으로 볼 때, 막부에서 各藩으로 쇠환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下達할 수는 있었으나, 쇠환을 강요할 수는 없었고, 또 감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사신들은 막부가 명령만 내리면 쇠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으나, 막부의 下達을 받은 各藩은 副還使의 요청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쇠환에 나서지 않았다. 地域에 따라서는 피로인을 숨기기도 하며, 在郷 각지에 적극적으로 막부의 下達을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대마도는 나름대로 쇠환에 협조하였으나, 사신들은 쇠환이 부진한 일차적인 책임을 대마도에 돌리며, “겉으로는 힘을 쓰는 척하나 실상은 지방 사람과 서로 안팎이 되었으니, 그 情態의 가증스러움이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고 대마도를 비난하였다.¹⁸⁾

그러나 사신들이 京都에 이르는 동안 피로인의 사정을 알아보니, 참으로 쇠환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 (淀浦로 향하는데) 언덕 위를 바라보니 늙은 부인 한 사람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포로 되어 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나온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 남녀가 제법 있었으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에 비로소 보게 되니 사람을 슬프게 한다.” <『扶桑錄』 8월 20일>

“ 지나오는 도중에 더러 포로 당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 수요가 많지 않았고, 倭京에 도착한 이후에도 와서뵈는 자가 연달아 있었으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매우 적었다. (中略) 10세 이전에 포로 된 사

16) 『東槎上日錄』 9월 5일

17) 『東槎上日錄』. 『扶桑錄』 9월 5일

18) 『扶桑錄』 9월 19일

람은 언어와 동작이 바로 하나의 왜인이었는데, 특히 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까닭으로 사신이 왔다는 것을 듣고 우연히 와서 뵈는 것이고 고국을 向慕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中略) 生計가 조금이라도 넉넉하여 이미 뿌리를 박은 사람은 돌아갈 뜻이 전혀 없었다.” <『扶桑錄』 8월 22일>

一次 使行(1607년) 때는 적극적으로 귀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고, 당시에 귀국할 수 없었던 자도 하루 빨리 귀국을 원하였다. 그러나 戰後 25년의 세월은 피로인의 생각과 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귀국을 기피하는 자가 있었다. 피로인은 거의 어렵게 살고 있었으나, 먹고 살만하면 귀국할 뜻이 없었다. 그래서 사신은 피로인의 望郷 정서를 자극하며 귀국을 종용하였으나, 귀국을 원하는 자는 양반계층이나 일본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뿐이고, 妻子가 있거나 재산이 있고, 定住하여 먹고 살만하면 거의 귀국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사신들은, “대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기로는 호남 사람으로서 포로 된 자가 더욱 심했다”고 분노하였으나, 피로인의 鄉愁는 사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¹⁹⁾

일본군이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撤兵한 것이 1598년 11월이었으니, 戰後 거의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끌려온 피로인도, 10代에 끌려왔으면 일본생활이 20여 년이라 일본이 더 익숙하였을 것이고, 20代에 끌려왔으면 이젠 妻子가 딸린 家長이라 귀국에 따른 문제가 많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30代였다면 벌써 老境을 바라보는 50代라 이젠 움직이기조차 귀찮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래저래 귀국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귀국한 후의 생활이 가장 불안한 요소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쇄환된 자는 혹은 죽이고 혹은 絶島에 보내며 또는 사신이 각자 불러모았다가 바로 제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나쁜 소문이 퍼져서, 사신을 보러 온 피로인에게 “간곡하게 타일러도 의혹이 풀리는 자는 또한 적었다.”²⁰⁾

그래서 사신은, “귀국을 꺼리는 자들이 가증스러워 바로 풀 베듯 하고 싶었다.” 특히 湖南지방에서 끌려온 피로인이 귀국을 꺼린다고 분개하였는데, 戰前 조선 농촌에서 農奴와 다름없이 衣食住에 곤란을 겪었던 농민들이, 일본에서 고생이야 되었지만 그나마 밥술이나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단지 故國이라는 이유만으로 衣食住가 불안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전쟁 중에 양반에 대한 불만과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倭軍에게 붙어서 附逆한 하층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해 附逆하였지만,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고국을 그리는 마음에 사신이 왔다는 소식이 반가웠으나, 귀국 후의 처벌이 두려워 귀국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²¹⁾

그래서 사신은 아래와 같은 諭示文을 쓰고 또 일본 “諺書”로 번역하여 각지로 보내며, 피로인

19) 『扶桑錄』 8월 22일

20) 『扶桑錄』 8월 22일

21) 왜군이 서울에 입성하였을 때, 亂民들이 대거 몰려와 궁궐을 비롯하여 公私奴婢의 文籍을 보관한 掌隸院과 刑曹에 放火하였고(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일), 咸鏡道에서는 臨海君과 順和君을 포박하여 加藤清正에게 넘긴 會寧의 官吏 鞠景仁의 예를 보듯이, 당시 하층민과 邊境 주민들 사이에는 양반과 중앙정부에 대한 反感이 많았다. 하층민과 邊境 주민들은 양반에 대한 反感과 먹고살기 위하여, 왜군의 築城과 군수물자 운반 및 전투의 길잡이 등으로 협조하며 附逆하였으니, 그들은 왜군 철군 때 자의반타의반으로 왜군을 따라 일본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피로인 연구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사신들이 현지에서 만나 보고 “귀국을 꺼리는 자들이 가증스러워 바로 풀 베듯 하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나, 공공연히 귀국을 방해하는 자들 중에는 附逆者가 많았을 것이다.

의 귀국을 독려했다.²²⁾

朝鮮國禮曹通諭事

나라가 불행하게도 갑자기 팔도가 전란을 입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 係累된지 어언 20여 년에 이르렀다. 그러한 중 어찌 어머니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겠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은 있으나 길에 어린 것들을 업고 오는 자는 보지 못했으니, 이는 필시 이미 오래도록 스스로 뜻을 꺾을 대책이 없어서 타서에 빠져버린 까닭이니 또 가련할 뿐이다.

국가가 외지에서 방랑하다 돌아오는 백성에 대하여 너그러이 은전을 베푸는 바, 丁未年간에 사신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인솔해 와 모두 그 죄를 면해주도록 하고, 심지어 부역한 자라도 그 역을 면해주고, 공사간 천민인 즉 그 천한 신분을 면해주는 등, 온전히 보호하고 구휼하여 회복 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에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했으며, 그 돌아온 바 백성들은 모두 가족과 인척간 면대하는 등, 다시 樂土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 일본에 있는 자라도 필히 전해 알게 할 것이니라. 이제 일본은 섬멸되었고 우리의 원수들이 전대의 이른바 문서들을 모두 바꾸어 새로운 문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까닭에 사신을 보내니, 일본에 피로 되어 있는 자들이 본국으로 생환할 때는 바로 지금이 그 적기이니, 만약 일제히 일본을 떠나서 돌아온다면 응당 예전에 돌아 온 사람들의 예에 의거해 면역 면천하여 온전히 회복하는 등 은전을 하나하나 시행하리니, 유문이 미치는 전역은 서로서로 유문의 내용을 전하여 사신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면, 거의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 면죄를 천연 시키거나, 남의 나라에서 귀신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간의 일을 거울삼아 시행하고 문서가 이르기를 기다려라.

문건은 포로로 잡혀있는 士民에게 하교하노라. 万曆 45년[1617年] 5월 일

이러한 諭示文도 사신의 관점에서 귀국을 독려했던 것이라, 사신을 만나보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피로인은, 유시문에서 약속한 赦免이나 免役과 免賤을 의심하였음에 틀림없다. 또 중요한 것은 당시 피로인중에 그런 漢文 諭示文이나 일본 “諺書”를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의문이다. 사신은 불쌍한 피로인의 사정을 잘 알았다고 하였지만, 피로인이 알기 쉽게 “諺文” 諭示文을 붙이는 것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사신은, 피로인이라면 누구나 首邱初心으로, 免役과 免賤 혜택을 주면 반드시 “樂土의 百姓”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나, 피로인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것이었고, 피로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돌아가서 살아갈 糊口之策이었다. 그러나 피로인에게 들리는 소문은 戰後의 사정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다.

사신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막부와 대마도의 노력으로, 大坂을 떠날 때 모인 피로인이 겨우 백여 명이였다. 大坂에서 포로 명부에 등록하였으나 출발할 무렵에 도망친 자도 많아, 사행은 扁路에 정박하는 곳에서도 피로인 쇠환에 노력하여, 마지막으로 대마도를 떠나는 피로인은 쇠환선 3척에 321명이였다. 10월 18일 使船과 쇠환선이 부산에 돌아왔다. 도착 전에 미리 기별이 있어서 水使가 여러 邊將을 거느리고 太宗台 밖에서 마중하였으나, 東萊府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음식 준비가 없었으니, 正使 이하 모두가 황당하였음은 물론이고, 2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제공되지 않았다.

李景稷이 『扶桑錄』에서 피로인을 귀향시킬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개탄하였는데, 다음 사행 귀환 때(1624. 仁祖2)도 피로인을 귀향시킬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副使 姜弘重은 쇠환한 피로인의

22) 原文은 漢文. 日本 唐津市 高德寺 所藏.

李元植. 『朝鮮通信使』. p. 290 “1617년 被擄人 諭告文” 写真 参考

귀향과 路資를 걱정하며 “行中の 나머지 양식을 털어내어 각기 5일간 양식을 주어 보내고, 살던 고을에 関文을 써서 각기 그 사람에게 부쳤다.”²³⁾ 조정은 倭情咨文에서 피로인을 “天朝의 赤子”라고 하였고, 使臣은 “우리나라 백성을 어찌 차마 딴 나라에 버려 두겠소”하며 피로인 쇄환을 강조하였으나, 그것은 対日外交에 名分을 얻으려는 口頭禪에 지나지 않았다.²⁴⁾

사신은 쇄환을 “피로인 구출”이라는 사명감에서, 日本화된 피로인을 미워하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쇄환하려고 애썼으나, 이것은 피로인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이었다. 백성들은 어떤 정치 체제보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먹고사는 일을 우선 생각한다는 것을 사신들은 잘 몰랐다.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피로인에게 무조건 귀국을 권유하였으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生業에 종사하며 가족을 거느린 피로인에게는, 비록 끌려왔지만 20여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 고향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朝鮮 雜器에서 陶磁器의 美를 발견하고, 陶工들을 우대하여 일본의 陶磁器文化를 꽃 피운 것은 “倭將”들이었다. 고국에서 천대를 받던 陶工들이 비록 끌려왔지만, 일본에서 衣食住에 어려움 없이 陶業에 종사하고 있는데, “免役과 免賤”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귀국을 서두르는 자는 없었을 것이다.

4. 幕府의 禮物은 穢物인가?

어느 나라나 使臣 왕래에는 禮物을 주고 받는다. 당시 禮物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銀으로, 왜란 후 조선에 온 明使들은 銀에 집착이 대단하여, 노골적으로 銀을 요구하였다. 1609년(光海君 元) 光海君을 國王으로 승인하는 冊封禮를 주관하려 왔던 明使는, 의주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자신을 위한 접대비를 전부 銀으로 환산하여 받았고, 밥보다 銀이 더 좋다고, 접대도 마다하며 약 6만 兩의 銀을 챙겨갔다. 즉위 이후 왕권이 불안하였던 光海君은 明의 公認이 필요하여, 明使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1621년(光海君 13) 泰昌 황제의 즉위를 알리려 왔던 明使도 약 8만 兩을 거두어 갔고, 1622년 後金을 공격하는 援兵을 청하려 왔던 明使도 역시 수만 兩을 거두어 갔다. 明使들의 노골적인 銀 요구는, 왜란 때 입은 “再造之恩”을 갚으라는 것이었으니, 조정은 明使에게 銀을 禮物로 주는 데 인색할 수가 없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갔던 조선 사신은 물질에는 淡泊하고, 禮에는 엄격하였다. 사신은 上國의 품위를 지키려고, 대마도가 제공하는 양식과 찬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거나 받지 말라는 規例까지 만들었다. 대마도에서 使行 500여 명이 왕복 한 달 여를 머물렀으니, 식량 조달만도 대마도에 큰 부담이었다. 거기다가 수시로 島主나 家老가 사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거나 선물을 보내며, 모든 日程을 수행해야 했으니 그것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사신은 되도록 그들이 초청하는 잔치를 사양하였고, 혹시 그들의 초대를 받으면 文房具 등을 보내어 謝禮하였다. 그러면서 사신은 그들의 禮를 주시하며, 잘못이 있으면 上國으로서 훈계를 잊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에, 島主의 서계를 주관하는 자는, “타향에 들어가면 그 풍속을 따르는데, 대마도에서는 조선의 예모를 강요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하였다. 그래서 사신은, 風俗이란 음식이나 거처 등에 관한 것이요, 禮節의 差等이란 天下가 통행하는 不文律로, 풍속에 따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훈계하였다. 여기에서도 대마도의 自主意識과 조선의 上國意識이 서로 부딪쳤던 것이다. 대마도는 물질이나 향응으로 사신에게 禮를 표하였으나, 사신의 관심은 물질보다 그들이 표하는 上下 禮節에 더 관심이 많

23) 姜弘重『東槎錄』 3월 7일

24) 『扶桑錄』 9월 5일

았다.

사신이 귀국하기 며칠 전, 秀忠은 三使에게 각각 銀子 500 매와 金屏風 10 面을, 同知訳官 두 사람에게는 각각 銀子 200 매를 보냈고, 수행원에게는 銀子를, 員役 400 명에게도 동전을 보내왔다. 다음 날에는 秀忠의 두 아우 駿河守(德川頼宣)와 尾張守(德川義直)가 白金 200 매를 三使에게 보냈고, 다음 날에는 5인 執政이 銀子 200 매를 보냈다.

당시 일본은 멕시코와 맞먹는 銀 產出로, 해외 무역에 銀을 決済 수단으로 사용하여 조선 倭館과 일본 長崎 무역을 통하여 많은 銀이 중국으로 流入되었으므로, 16세기 중반까지 서양에서는 중국을 “銀의 나라”라고 불렀다. 당시 일본이 세계적인 銀 產出国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銀子는 使臣에게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三使는, 訳官 이하 下屬에게 증정된 礼物은 모두 나눠주었으나, 자신들의 예물은 한사코 사절하였다. 그러나 幕府 使者는, 윗분의 예물을 사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므로, 결코 도로 가져갈 수 없다고 버티었다. 三使는, “ 국가가 왜인을 견제[羈縻]하는 계획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그들의 물품을 간직한다는 것은 혈기 있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바가 아니다” 라며, 막부 礼物 처분에 고심하였다. 前行에서 막부 礼物을 받았다고 뒷말이 많았으므로, 예물 처분은 민감한 사안이라 副使는, “ 저 銀을 국가에 바쳐 한편으로 宮闕都監의 비용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詔使(明使)를 맞이할 때 비용으로 하자”며 鄭彦邦(漢學同知)에게 의견 조정을 부탁하였다.

詔使(明使)들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자는 의견은, 1610년(光海君 2) 왕세자 책봉 의식을 주관하려 왔던 明使의 예물로, 戶曹는 1년 동안 모아두었던 銀을 몽땅 써버렸기 때문이다. 宮闕都監의 비용으로 쓰자는 의견도, 1615년(光海君 7) 5월 光海君이 추락된 왕실의 위엄과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고, 왜란 때 소실된 궁궐 재건에 집착을 보였으나, 戰後의 어려운 사정으로 建築費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기 문제이다. 副使의 제안은 어려운 나라 경제를 생각한 현실적인 案이었으나, 사신은 먼저 國家의 體面과 名分을 앞세워야만 하였다. 사신이 오랑캐의 접대를 받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하물며 礼物까지 받는다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만약 礼物을 받아오면 朝廷의 彈劾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막부의 礼物은 訳官 이하 下屬들에게는 橫財였으나, 三使에게는 정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致命的인 “穢物”이었다.

이러한 副使의 의견을 들은 從事官 李景稷은, “ 이미 받을 수 없는 물건이라 했으면서 도리어 가져다가 임금에게 드리려고 하니, 이 어찌 임금을 존대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뜻이겠는가?”하며 副使를 비난하였다. 三使는 막부의 礼物을 두고 고심하다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마도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 장군의 후의를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미 영수하였으니, 영수한 다음에는 이미 使臣의 물건이 되었다. 馬島가 이미 분주한 노고가 있고, 앞으로 쇄환하는 일과 쇄환되는 사람의 당장 먹을 양식, 배를 빌리는 등 허다하게 책임지고 수응해야 할 일이 있다. 馬島로서는 재물이 없어도 이 일은 해야 하고, 재물이 있어도 또한 해야 한다. 하물며 이 물건을 모조리 봉해서 돌렸으니, 이 뒤부터는 또 馬島의 물건이 된 것이다. 그 출입하는 비용을 馬島에서 마음대로 하라. 사신은 일체 상관하지 않겠다.” <『扶桑錄』 9월 9일>

이렇게 대마도에 다짐을 하며 그 액수를 계산해 보니, 銀子 1,500 매가 6450 兩, 金屏이 30 面, 장군의 두 아우가 보낸 銀子 200 매가 860 兩, 다섯 집정이 보낸 銀子 200 매가 860 兩이었다. 三使는 이 巨金에 미련 없이 手決을 하고 대마도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대마도는 銀子 6천여 냥을 부산 왜관으로 도로 보내와, 朝廷이 引受해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光海君의 命으로 銀을 別人情으로 쓰거나 營建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으니,²⁵⁾ 결국 光海君이 막부 禮物를 받은 셈이다. 대마도는, 使臣이 막부 예물을 거절하는 속내와 조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받아두었다가 도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使臣의 体面도 세워주었고, 조선의 어려운 경제를 도와주었다. 使臣은 國家 体面과 名分을 앞세워 예물을 거부하였으나, 光海君은 막부 禮物를 받아서 요긴하게 쓰자고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광해군의 최종 결정은 조정 내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었고, 幕府 禮物는 궁궐 營建에 큰 보탬이 되었다.²⁶⁾

幕府가 使臣에게 그렇게 많은 銀子로 豪氣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秀賴를 멸망시키고 豊臣家の 막대한 軍資金을 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豊臣家の 銀이 幕府 金庫로 잠시 들어갔다가, 결국 조선의 궁궐 營建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이니,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5. 伏見城 聘礼

8월 26일, 国書伝命式이 伏見城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사신은 秀忠에게 “ 우리의 원수를 죽이고 옛날 和好를 거듭 닦게 되니, 실로 두 나라의 다행입니다 ”하며 豊臣家 멸망을 축하하였다. 秀忠은 맨발로 사신을 맞으며, 本多正信과 外交僧 崇伝을 배석시켰는데, “ 그의 언사와 안색을 보니 기뻐하는 기색이 많았다.” 秀忠이 사신에게 잔을 권하고 들어가자, 秀忠의 두 아우 [駿河守(徳川頼宣) 16세. 尾張守(徳川義直)20세]가 대신에 사신을 접대하였다. 사신이 보기에, “ 접대하는 예가 공경하고 삼감이 극진하였으나, 蛮夷의 풍속은 본디 예를 알지 못하므로, 의복 제도와 진퇴하고 승강(陞降)하는 절차가 꼴이 되지 않았으며, 다만 눈을 똑바로 뜨고 서로 보는 것은 허리에 찬 칼 하나 뿐이었다. 秀忠 옆에 모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嚴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은 猜疑에서 나온 것이니, 蛮夷의 풍속이란 고약하다 하겠다 ”며, 式典 분위기를 蛮俗으로 깎아 내렸다.

(秀忠은) 6월 26일에 倭京에 도착했고, 66주의 장수가 모두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였는데, 사신의 행차가 때에 알맞게 왔으므로, 秀忠이 제 위세를 자랑하는데 한 도움이 된다고 여겨, 이 때문에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 있다고 한다. <『扶桑録』 8월 26일>

秀忠이 기뻐함은, 使行이 제 위세를 자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막부가 伏見城에서 国書伝命式典을 갖는 의도를 짐작하고, 使行이 막부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음에 “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며, 이어 自歎하는 詩를 지었다.” 使臣이, 使行을 오로지 兩國의 友誼를 다지는 외교적인 행사라고만 생각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었다. 막부는 伏見城에서 国書伝命式을 미리 계획하였고, 島主는 일정에 맞추느라 대마도부터 사행을 재촉하여, 壱岐島에서도 사행을 서둘렀으나, 사신은 “ 저들이 (접대를) 미처 조처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으로 오해하였다. 8월 14일 使行이 道포[韮浦:도모노우라]에 入港하자 島主는, “ (장군이 京都에 와 있는데)속히 오라는 뜻으로써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군이 만약 돌아가고 나면 關東까지 가기가 또한 매우 고생스러우니, 행차는 한 시각이 바쁘므로 潮水를 기다렸다가 속히 전진하는 것이 가합니다 ”며 京都에서 国書

25) 光海君日記 10년 6월 25일 :

「부산 왜관에 있는 회답사에게 관백이 준 銀子를 營建 都監에서 가져다 쓰게 하다」

26) 그러나 後世에 편찬된 『光海君日記』에는, “ 왕이 營建都監에 명하여 그것을 가져다 쓰도록 하였다 ” (光海君日記 10년 6월 25일)며 光海君의 처사를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仁祖反正 主体들이 1624년(仁祖 2) 7월에 『光海君日記』를 再編纂하였으므로, 자신들의 反正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光海君의 처사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伝命하려고 행차를 서둘렀다.

幕府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은 “大坂平定 祝賀”에 의미를 두고 있었으므로, 聘禮를 江戸城이 아니라 大坂에서 가까운 伏見城에서 갖게 된 것이다. 伏見城은 秀吉이 1594년 공사에 착수하여 1596년에 완성한 城으로, 秀吉이 아들 秀頼에게 大坂城을 물려주고 자신의 居城으로 쓰던 곳이었으니, 사신의 감회도 착잡하였을 것이다. 伏見城의 聘禮는 바로 豊臣家 殘党에 대한 정치적인 示威였고, “66州의 将官”들에게 충성을 다짐받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사신은, “66州의 将官”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秀忠의 권위 高揚을 위하여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었으니, “무릎을 꿇고 나니 마음과 쓸개가 찢어지는 듯하였다.”

幕府는, 徳川家が 일본의 覇者이며 秀忠이 습직 하였음을, 유일한 通交国인 朝鮮 사신을 맞아 公布하며, 아울러 “66州의 将官”뿐만 아니라 京都의 天皇家와 “公家”에게도 示威하는 것이었다. 막부는, 1613년에 「公家衆法度」를 공포하여 “公家”의 생활을 통제하였고, 1615년에는 「武家諸法度」를 공포하여 徳川가와 諸大名의 私的인 服屬關係를 公的인 정치관계로 재편성하여, 아울러 「禁中並公家諸法度」를 제정하여 天皇家와 “公家”를 정치에서 격리시키며, 京都所司代를 두고 이들을 엄하게 감시하였다. 이러한 규제가 있기 전부터 朝廷과 막부 사이에는 알력이 있어서, 1611년에는 막부의 朝廷 干涉에 抗議하는 뜻으로 後陽成天皇은 젊은 나이(41세)였지만 아들(後水尾天皇)에게 양위하고 물러났다. 이러한 가운데도 徳川가는 天皇家와 혼인관계를 맺어 권위를 고양시키려고 손을 써오다가, 1620년 6월에야 秀忠의 딸 和子(14세:東福門和子)를 後水尾天皇(25세)에게 출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때에 伏見城 聘禮가 주는 의미는, 家康이 死去한 직후 秀忠의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 秀忠의 權威 高揚에 錦上添花였으니, 秀忠의 기뻐하는 기색을 짐작할 수 있겠다.

6. 国書 改作

8월 26일 將軍 秀忠에게 国書を 伝命하고, 30일에 일본의 答書 草案을 우선 받아보니 “日本国源秀忠은 朝鮮 国王 殿下에게 答書を 올립니다”로 되어 있었다. 조선의 對日政策의 기본은 對等 抗禮에 있는데, “日本国源秀忠”과 “朝鮮国王殿下”는 對等한 抗禮가 될 수 없었다. 지난번(1607) 사신을 초빙하며 家康이 보냈던 国書에는 “王”字를 썼는데, 答書에는 “王”字를 쓰지 않았고, 領納이라는 “納”자와, 弊邦을 賀禮한다는 “賀”자와, 盟約이라는 “盟”자와, “自愛”라는 두 글자도 모두 타당하지 않은 字句였으므로, 執政에게 가서 다시 고쳐오라고 대마도를 닦달하였다. 지난 1607년 使臣이, “王”字를 넣지 않고 朝鮮을 낮추는 用語가 들어있는 答書を 그대로 받아왔다가 国家 体面을 손상시켰다고 탄핵을 당한 예가 있었기에, 答書의 字句는 사신에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였다.²⁷⁾

그러나 幕府 집정은, 일본 古例에 따라 “王”字를 쓰지 않았고, 하물며 일본을 낮추어서 쓰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反問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足利幕府 이후 朝鮮에 보내는 国書에 “国王”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막부는, 조선 国書에 將軍을 “日本国王”이라 칭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으나, 答書에는 언제나 “日本国源秀忠” 등으로 칭하며, “日本国王”이라 칭하지 않는 것이 慣例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幕閣을 비롯하여 林羅山(大學頭)이나 막부의 外交顧問으로 書契를 주관하는 崇伝도, “將軍은 王이 아닌데 어떻게 ‘王’字를 쓰느냐”고 国王를 반대하였다. 이런 난감한 문제

27) 선조 40년(1607) 7월 19일부터 제기된 회답사가 받은 서계 문제는, 9월에 들어서 거의 매일 탄핵으로 이어져, 결국 사신의 賞資는 몰수되었다.

를 해결하려고, 사신은 나이 어린 島主나 調興만 닦달할 수 없어서, 중간에게 주신하는 島主의 内匠에게 선물까지 주며 독촉하였다. 9월 4일 内匠이 전하기를, 林羅山이 “將軍이 실제로 王의 일을 행하고, ‘王’字를 쓰는 것은 존대해지는 것이니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崇伝도 찬동하여 “조선에 보내는 글은 조선의 齣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고 고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5일이 되어도 답서 수정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사신은 실무자인 橋智正과 内匠에게 “家康 서계와 사신을 초빙하는 서계에는 ‘王’字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에만 쓰지 않음은 무슨 뜻이냐”며 前例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하였다. 戰後 通交를 시작할 때부터 국서를 改作하였던 대마도 실무자는 이 말에 失色을 하며, “만약 이와 같이 말하면 島主 등이 모두 죽음에 나아가게 됩니다”하며, 조선의 선치를 애걸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사신은, 전부터 있어왔던 국서 改作의 농간을 짐작하였으나, 더 이상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5일 本多正純 등이 가져온 답서를 보니, 대마도가 중간에서 수정을 주신하였다던 답서는 草案과 같았으므로, 사신은 本多正純 등에게 답서를 수정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드디어 9일 아침 調興이 가져온 수정한 답서를 보니, “王”字를 썼고, “納”자는 “受”자로, “賀”자는 “遠慰”로, “盟”자는 “交”자로 고쳤으며, “珍重”이란 것도 줄을 올려 써서, 사신의 지적대로 고쳐졌다. 사신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이유를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으나, 말할 것도 없이 수정한 답서는 대마도가 改作한 것이었다.

조선과 막부 사이의 외교관계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바라던 대마도는, 모처럼 회복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답서마저 改作하는 수단까지 강구하였다²⁸⁾ 朝廷은 1607년 사행을 파견을 하기 전부터, 대마도가 国書を 偽造하고 있다는 心証을 갖고 있었고, 대마도에서 사신과 玄蘇의 老獯한 問答를 통하여, 사신은 대마도가 국서를 改作하였다는 心証을 사행록에 기록하였다.²⁹⁾ 이번에도 사신이 前齣를 들어가며 대마도 실무자들을 힐문하니, 그들이 失色하며 애걸하는 모습에서도 국서 改作에 대한 心証은 충분하였다. 또 지난 9월 5일의 齣를 보듯이, 국서는 막부 실무자가 使臣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通例였는데, 이번에는 9일 이른 아침에 調興이 직접 가져온 것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국서가 改作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사신은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았다.

당시 외교문서를 起案하였던 崇伝은 『異国日記』에서, “王字는 옛날부터 高麗(조선)에 보내는 서류에 쓰지 않는 習慣이 있다. 高麗는 일본보다 野蠻国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前回の 답서를 쓴 兪長老(承兪)도 古例에 따라 王字를 넣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道理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일본을 조선보다 上位에 올려놓으려던 崇伝이, 9월 4일 内匠이 전한 것처럼, “道春(林羅山)의 말을 듣고”, “(崇伝이)조선에 보내는 글은 조선의 齣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답서를 수정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林羅山도, 1617년 통신사 來聘을 “來貢”이라고 표현하며, “조선은 예로부터 일본의 西蕃이었고, 지금 조선이 來貢하므로 후히 대하였다”(『朝鮮信使來貢記』, 『林羅山先生文集』 第二十二)며,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었다. 그러한 林羅山이 崇伝의 의견에 반대하며, 사신의 요구대로 답서 수정을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이 답서에 “王”字 쓰기를 꺼린 것은, 朝鮮国王과 “抗禮”가 되는 것은 天皇이나, 天皇이 조선에 国書を 보낸 적이 없었고, 征夷大將軍을 日本国王으로 보기도 애매하였다. 즉, 조선 국왕은 중국의 책봉체제 안에 있었으나, 徳川幕府의 征夷大將軍은 室町時代の 足利將軍과 달리 중국의 책봉

28) 田代和生 . 『書き替えられた国書』 .p. 39

29) 1607년 『海槎録』 3월 15일

체제 밖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실제로는 王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王”字 붙이기 싫어하는 將軍에게 억지로 “王”字를 붙이도록 만들어, 조선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抗禮”로 교류해야만 조선의 자존심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 답서가 改作되었다는 心証을 가졌으나, 새삼스럽게 국서의 真偽를 따져서 외교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사신은, 오히려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어려운 외교문제를 중간에서 쉽게 풀어주는 대마도의 老獯한 處事가 内心 고맙기도 하였을 것이다. 正使의 『東槎上日錄』과 從事官의 『扶桑錄』 文面으로 볼 때, 사신은 분명히 國書 改作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마도가 改作한 國書가, 귀국 후의 사신의 탄핵을 막아주며, 또 조선의 體面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니, 사신은 외교적 實利를 생각하여, 알면서도 모른 척 그대로 받아왔다고 본다.

幕府에서 볼 때, 사신이 그렇게 답서 字句에 대하여 가탈을 부리다가, 사신의 요구대로 막부에서 수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國書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귀국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黑幕이 있었음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부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國書 改作을 感知하였음에도 이를 暗黙의으로 承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國書 改作은 兩國의 體面이 걸려 있었고, 또 이것을 밝혀서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當事者들은 대마도의 弄奸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모두에게 有利하였다.

三. 결 론

倭亂 後, 北邊을 소란케 하는 後金의 군사력은 朝廷의 새로운 고민거리였다. 조선은, 倭亂 때 도와준 明의 “再造之恩”을 無視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後金의 군사력을 輕視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또 南邊의 安全을 위협할 수 있는 日本의 군사력도 不安하였으므로, 조선은 이러한 “北虜南倭”에 어떻게 대처할까가 큰 걱정이었다.

幕府가, “大坂夏の陣”과 秀忠의 襲職을 계기로, 조선에 사신 파견을 요청하니, 조선은 幕府와 友好를 圖謀하여 南邊의 安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朝廷은, 明이 困境에 처해있을 때 일본과 和好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오랑캐들의 野습”으로 보일 수 있었으므로, 對外的으로는 “回答兼副還使”라 칭하며 名分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二重的인 태도는 明에 奏聞한 “倭情咨文”에 잘 보인다.

朝廷은 “回答兼副還使”를 파견하면서, “쇄환”과 “日本国情探索”을 위한 使行이라고 明朝에 奏聞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었다. 使臣은 歸路에 쇄환에 注力하였고, 日本国情探索에는 관심이 적었음을 볼 때, 당시 조선은 일본의 再侵을 우려하여 日本国情 探索이 절실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로인 쇄환도 이제는 事情이 변하여 定住者가 늘었고, 귀국을 독려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적어졌다. 사신은 피로인 중에 附逆者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신의 一方的인 諭示文은 피로인의 관심을 끌 수 없었고, 京鄕各地에서 적극적인 협조도 얻지 못하였다.

“日本国情探索”을 名目으로 從事官 李景稷이 『扶桑錄』 뒤에 실은 “日本事情”도 政治, 軍事보다 地誌와 民俗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正使 吳允謙의 『東槎上日錄』는 “日本事情”을 아예 신지 않고 後尾에 使行詩를 신는 여유마저 보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使行 목적이 “피로인 쇄환”이나 “日本国情探索”에 있었다기보다, 對馬島 기미(羈縻)와 友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은 “

倭情咨文”에서, 北邊이 不安하니 南邊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한 외교적 布石으로, 일본에 使臣을 파견한다고 말할 수 없었으나, “ 信使의 위세를 빌려 誇示하고자 하는 幕府의 요구”를 들어주고, 幕府와 友好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아울러 그 裏面에는, 北邊 事態에 대비할 日本의 우수한 銃劍을 도입하려는 意圖도 있었다. 그러나 사행록에 銃劍 도입에 대해서는 아무 記述이 없다 이것은 아마도 “ 倭人”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대한 自尊心과, 그것이 訳官들의 업무이었기에 생략된 것이라고 본다.

또 『扶桑錄』은 쇄환에 관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였으나, 正使의 『東槎上日錄』은 사행의 전반적인 기록 때문인지, 쇄환에 관해서는 자세하지 못하다. 그러나 實務者의 관심이 쇄환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 사행의 懸案이 쇄환이었고, 쇄환 이외에 중요한 懸案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행 출발부터 쇄환은 중요 事案이 아니었으며, 1617년 使行은 “ 回答兼刷還”을 名分으로 파견되어, 秀忠이 “ 伏見城 聘禮”를 칭하며 “ 66州의 將官을 불러놓고, 秀忠의 권위 高揚을 위한 자리”에, 결과적으로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었으나, 이것도 당시의 “ 北虜南倭”라는 不安한 狀況에서 高次元의 實利外交였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吳允謙 『東槎上日録』. 国訳海行摠載Ⅱ. 民族文化文庫刊行会
李景稷 『扶桑録』. 国訳海行摠載Ⅲ. 民族文化文庫刊行会
李元植(1991) 『朝鮮通信使』. 民音社. p.289-293
韓明基(2000) 『光海君』. 歴史批評社. p.49-77. 180-217.
藤野保(1965) 『徳川幕閣』. 中公新書. p.90-106
内藤雋輔(1976) 『文禄. 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p.83-138
田代和生(1983) 『書き替えられた国書』. 中公新書. p.31-49
仲尾宏(2000) 『朝鮮通信使と壬辰倭乱』. 明石書店. p.166-206

K C I

【要 旨】

秀吉の朝鮮侵略以後、北辺を荒らす「後金」の優勢な軍事力は朝鮮の新しい悩みになった。朝鮮は、「後金」への挟み撃ちを求める明の要求を拒むこともできず、「後金」を軽視することもできない破目になった。また、南辺での日本の軍事力も不安の種で、朝鮮は「北虜南倭」の立場に追い詰められていた。こんな時、幕府は対馬を通じて使臣の派遣を要求して来た。朝鮮は、南辺の安全を保ち、北辺に備えることを図ったので、明には「回答兼刷還使」で「日本国情探索」を目的すると奏聞して、使行を派遣した。実際、使臣の役割は、幕府と友好関係を築ながら、日本の優秀な銃剣を導入する目的もあった。だが、使臣の刷還のための働きは効果が少なく、もはや被擄人の事情も変っていた。幕府は、この使行を政権の権威高揚のために大いに利用、使臣はその企みに憤慨したが、「北虜南倭」という地政学的な弱点を抱えている朝鮮としては、これも一つの実利外交であった。

キーワード: 後金, 光海君, 回答兼刷還使, 倭情咨文, 鳥銃, 羈縻, 実利外交

투 고 : 2002. 11. 25
2차 심사 : 2002. 12. 14
3차 심사 : 2003. 1. 14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번지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3-229-8342

E-mail : joshua@chongju.ac.kr

KCS I